우리나라 女性의 身體에 대한 意識構造

—光州地域을 中心으로—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about Somatotype for Korean Females—

光州大學校, 衣裳學科
助教授 朴 宇 美

Dept. of Clothing, Kwang Ju Univ.
Assistant Prof.: Park, Woo Mee

〈목 차〉

Ⅰ. 序 論
Ⅱ. 研究方法
Ⅲ. 結果 및 論議
Ⅳ.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Abstract〉

Several aspects of the conscious about somatotype were analized for the young females and the middle-aged womenhood of Korea.

The questionaires were sent to sample of students of university and the middle-aged womenhood in kwangju.The data from 233 respondants were analysed in using frequency,crosstabs and t-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Korean young females tend to have shorter and slimmer in trunk,taller in height and lighter in weight than somatotype of the middle-aged women.

2. Of the trouble of somatotype, young females tend to have much the trouble about the thickness of thigh and the middle-aged women tend to have much the trouble about the thickness of waist,hip.

3. Korean young females tend to have much the trouble of somatotype than that of the middle-aged women.

4. And then, most young female had strong aspiration to be slim about somatotype than that of middle-aged women.

Ⅰ. 序 論

現代社會는 文明의 發達로 인해 生活의 풍요로움을 가져왔고,이로 인해 기본적인 衣食住의 해결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여유를 갖게됨으로서 수준높은 文化生活을 영위하게 되었으며 美를 追求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승되어 있다고 본다.

의복을 통한 미의 욕구충족은 크고, 기성복산업의 눈부신 발달로 인해 다양한 패션과 함께 자기 身體에 대한 美의식이 고조되어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아름다운 體型을 유지하려고 하는 慾望이 고조되어있다. Secord등은 사람이 신체에 대한 만족이 커지면 신체집착도 증진된다고 하였고 Bernard Rudofsky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고 시사하였다.또 신체를 조절 조작함으로써 간접적인 기쁨을 느낀다고 했다.[1]

사람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身體의 變化를 느끼게 되는데 특히, 중년여성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임신 출산등으로 중년기에 들어서부터 신체의 치수와 프로포션(proportion)이 변화하기 시작해서 다양한 체형분포를 가지게 되며 폐경등을 격으면서 체중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20대의 標準體型에 비하면 過多體重에 해당되어 體重管理에 우려를 갖게 된다.[2][3] 그래서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기 위해 스포츠, 미용기기, 에어로빅, 다이어트치료법등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방법이 아니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의복을 통해 체형의 단점을 감추어주고 장점을 강조해줌으로서 體型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4]

身體에 대한 의식에 관련되는 先行硏究를 보면 外國 특히 日本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山名信子외 2인[5][6]은 자기의 체격과 의복치수에 관한 의식과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神山進외 1인[7][8]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評價와 被服에 대한 滿足度와의 關係를 硏究하였으며 이외에 身體 각부위의 사이즈에 대한 의식과 滿足度와의 관련이나 비만의식 여부와 의복의 選擇行動등이 연구되었다.[4][9]-[10]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체발달의 경향에 관한 연구나[11]-[13] 의복에 대한 行動의 心理的 接近이나 消費者行動에 관한 硏究는 활발히 硏究되고 있으나[14]-[17] 身體의 滿足度와 服飾行動에 관한 硏究는 불충분하다고 사료된다.

硏究者의 주요方向은 着衣 行動은 身體와의 밀접한 관계속에서 이루어 지는것이므로 그 중요성에 중점을 두어 身體의 단점을 감추어주고 장점을 강조할 수 있는 의복의 디자인이나 着衣 方法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이다. 本 硏究의 구체적인 目的은 일차적으로 현대의 젊은 여성과 중년층 여성이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정도로 만족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신체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등, 각 그룹간에 신체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調査, 比較分析하고자 한다.

Ⅱ. 硏究方法

1. 調査對象 및 資料收集

ⅰ) 調査對象

임의표본추출법에 의해 선정된 硏究對象은 光州에 거주하는 女子大學生 170여명과 40-50세의 中年女性 100명으로 총 270여명으로하고 調査方法은 集團調査法으로 하였다.

ⅱ)資料收集

本 硏究를 수행하기위해 集團調査法으로 1992년 4-5월 사이에 학교나 주부교양강좌의 수업시간 중 총 27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5-30분사이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고 人體計測은 조사자가 줄자를 이용해 직접 계측하여 기록하였다. 총 270부 중 통계분석이 가능한 여대생 164부,주부 69부를 SPSS PC+[18]에 의한 전산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2. 測定道具

본 硏究에 사용된 測定道具는 身體意識構造에 관

계된 선행연구에 쓰여진 것으로 中川, 岡田등이 제작한 測定道具[4)9)]를 번안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調査內容은

1) 人體計測: 調査對象者의 신체 각 사이즈를 알기위해 인체계측을 하는데 방법은 Martin식 人體計測機를 사용하여 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어깨나비를 측정 기록하였다.

2) 調査項目: 調査對象者의 일반적 사항 3항목, 신체의 각 부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조사하는 24항목(5점척도), 苦悶의 有無48항목(예, 아니오), 身體에 대한 滿足度 4항목(5점척도),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체형 24항목(5점척도), 착의행동 65항목등을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3. 통계분석

i) 單純集計

調査資料를 項目別로 單純集計하여 身體에 대한 意識構造, 理想的으로 생각하는 體型등을 頻度와 百分率로 分析하였고 그룹별 차이는 t-test로 비교하였다.

ii) Group별 集計

그룹별 분석은 가슴둘레의 크기는 6그룹으로, Rohrer Index는 R.I〈1.2(쇠약형) 1.2〈R.I〈1.5(정상형) R.I〈1.5(비만형) 으로 분류하여 身體에 대한 意識構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체형을 조사하고 x^2값을 구하여 상호관련성을 분석하였다.

Ⅲ. 結果 및 論議

1. 調査對象者의 身體칫수

〈Table 1〉은 調査對象者의 身體 각 部位에 대한 칫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女大生은 표준사이즈[19)]에 비해 작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대체로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主婦와 비교해 볼 때 어깨나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0.01%에서 유의차를 보여 중년으로 갈수록 사이즈에 많은 변화를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즉 여대생이 주부에 비해 높이항목인 身長은 크고 둘레항목은 적게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층인 주부는 청년기와는 달리 생리적으로 지방이 허리와 엉덩이에 축적되고 또한 허리의 굴곡이 불분명하며 복부가 심하게 돌출되고 목이 굵어지고 등에도 군살이 붙는 등의 여러 외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한다.[3)] 그러나 骨格에는 큰 변화가 없기때문에 어깨나비등의 유의차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Table 2〉는 신체칫수별 구성비를 나타낸 것인데 각 부위의 칫수분류는 中川의 연구[4)]에 의한 분류법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보면 신장은 여대생이 161-172cm그룹이 53.7%로 가장 많고 주부는 153-161cm 그룹이 56.5%이다. 체중은 여대생이 45-49kg그룹이 39.6%, 주부가 60-74kg이 34.8%로 여대생이 주부보

〈Table 1〉 調査對象者의 身體칫수와 그룹별 유의도

신체 부위	신 체 칫 수					t-value
	여대생		주 부		표준(20-24세)	
	Mean	S.D	Mean	S.D	Mean	
신 장	161.36	3.81	159.75	4.29	155 (cm)	2.69**
체 중	51.21	5.82	57.71	7.73	53 (kg)	-6.40***
가슴둘레	83.91	5.82	89.67	8.29	85 (cm)	-5.25***
허리둘레	66.41	4.69	74.91	7.38	68 (cm)	-5.23***
엉덩이둘레	89.91	4.44	94.55	6.77	89 (cm)	-8.85***
어깨나비	39.84	2.06	40.17	2.81	39 (cm)	-0.90
R.I	1.22		1.42			-9.18**

* P〈.05 ** P〈.01 *** P〈.001

〈Table 2〉 조사대상자의 신체칫수별 구성비

(단위 : %)

부 위	칫 수	구성비		부 위	칫 수	구성비	
		여대생	주 부			여대생	주 부
신 장	144-152	1.2	5.8	엉덩이둘레	72 - 83	6.1	2.9
(cm)	153-160	44.5	56.5	(cm)	84 - 87	18.9	11.6
	161-172	53.7	37.7		88 - 91	37.8	15.9
	173-	0.6	0		92 - 95	26.2	30.4
					96 -108	11.0	39.1
체 중	37 - 44	3.7	1.4	허리둘레	54 - 58	0.6	0
(kg)	45 - 49	39.6	8.7	(cm)	59 - 61	6.1	0
	50 - 54	26.8	21.7		62 - 64	26.8	8.7
	55 - 59	26.8	30.4		65 - 67	39.0	5.8
	60 - 74	3.0	34.8		68 - 73	26.8	31.9
	75 -	0	2.9		74 - 85	0.6	43.5
					86 -	0	10.1
가슴둘레	68 - 77	4.3	4.3	어깨나비	- 33	0	0
(cm)	78 - 80	17.7	7.2	(cm)	34 - 36	6.1	8.7
	81 - 83	25.0	11.6		37 - 39	39.6	27.5
	84 - 86	31.7	13.0		40 - 44	54.3	58.0
	87 - 97	21.3	50.7		45 -	0	5.8
	98 -	0	13.0				

(여대생 N=164)
(주 부 N= 69)

다 작은 경향이다. 가슴둘레는 여대생이 84-86cm가 31.7%, 주부는 87-97cm가 50.7%이며 엉덩이둘레는 88-91cm가 37.8%, 주부는 96-108cm가 39.1%로 많았으며 허리둘레는 65-67cm가 39%, 주부는 74-85cm가 43.5%로 나타나 주부들의 둘레항목에 있어서의 뚜렷한 증가를 볼 수 있다.

2. 身體 각 部位別 形態에 대한 意識 構造

1) 身體 각 部位의 形態에 대한 意識構造

衣服着用者의 身體에 대한 意識은 衣服의 選擇行動에 重要한 影響을 미친다. 그러므로 衣服設計상, 둘레등의 身體外形 뿐 아니라 身體에 대한 意識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Fig.1〉은 身體에 대한 女大生 主婦그룹의 意識構造와 그룹간의 유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면 대체로 본인의 身體에 대해서 「이도저도 아니다」에 많이 대답하여 각 부위에 대해 극단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룹별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몸이 가늘다」는 0.1%수준에서 「허리가 가늘다」는 0.01%수준에서, 「다리가 가늘다」, 「넓적다리가 가늘다」는 0.5%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즉 女大生은 主婦보다 「몸이 가늘다」「허리가 가늘다」라고 생각하고 또 「다리가 굵다」「넓적다리가 굵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2) 身體 각 部位의 形態에 대한 苦悶의 有無

(1) 單純集計別 苦悶의 有無

〈Fig. 2, 3〉는 女大生, 主婦의 身體 形態에 대해서 項目別로 고민이 있다고 한 사람의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身體型에 대해서 苦悶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의 백분율이 50%미만으로서 본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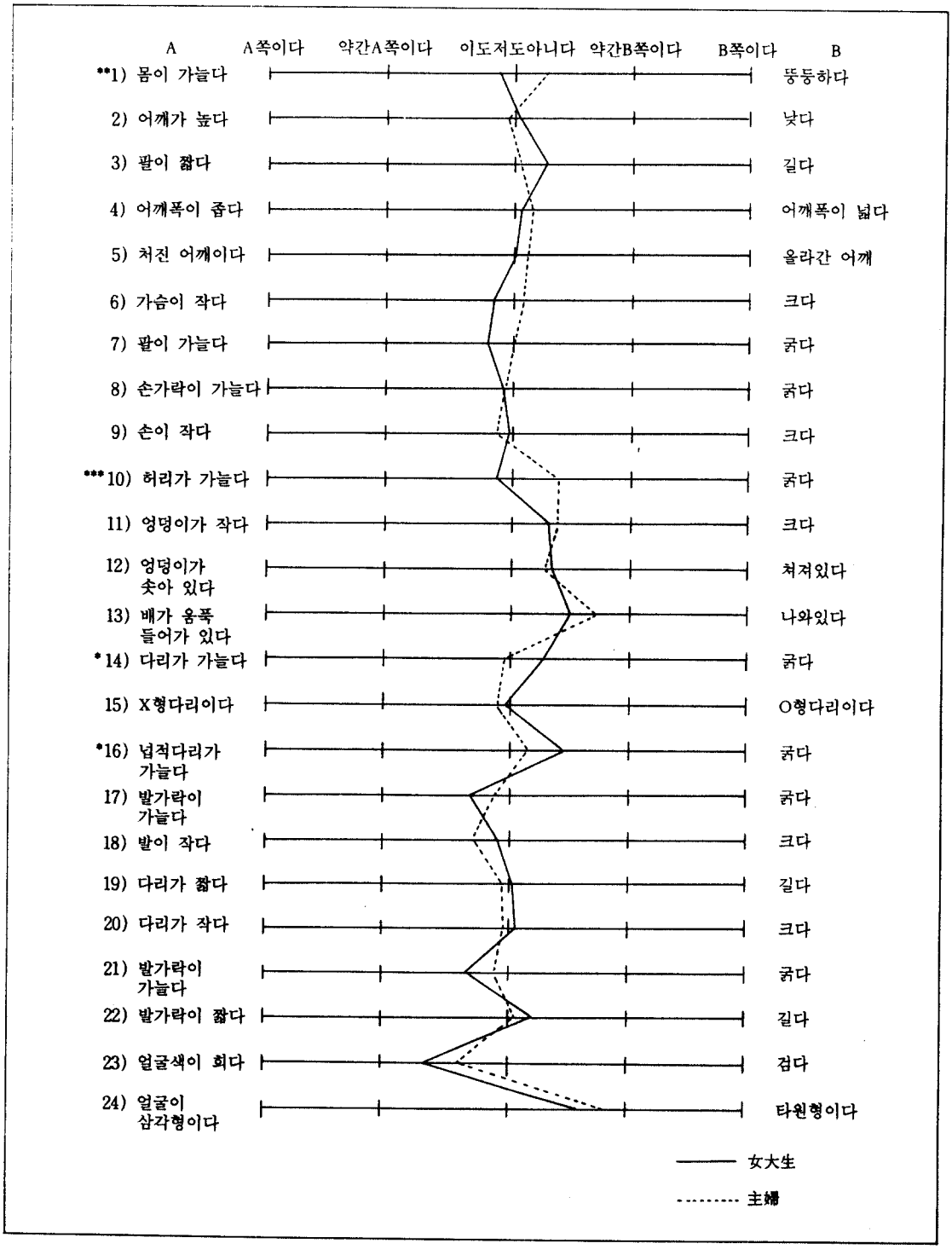


Fig.1 身體에 대한 意識構造와 그룹간 유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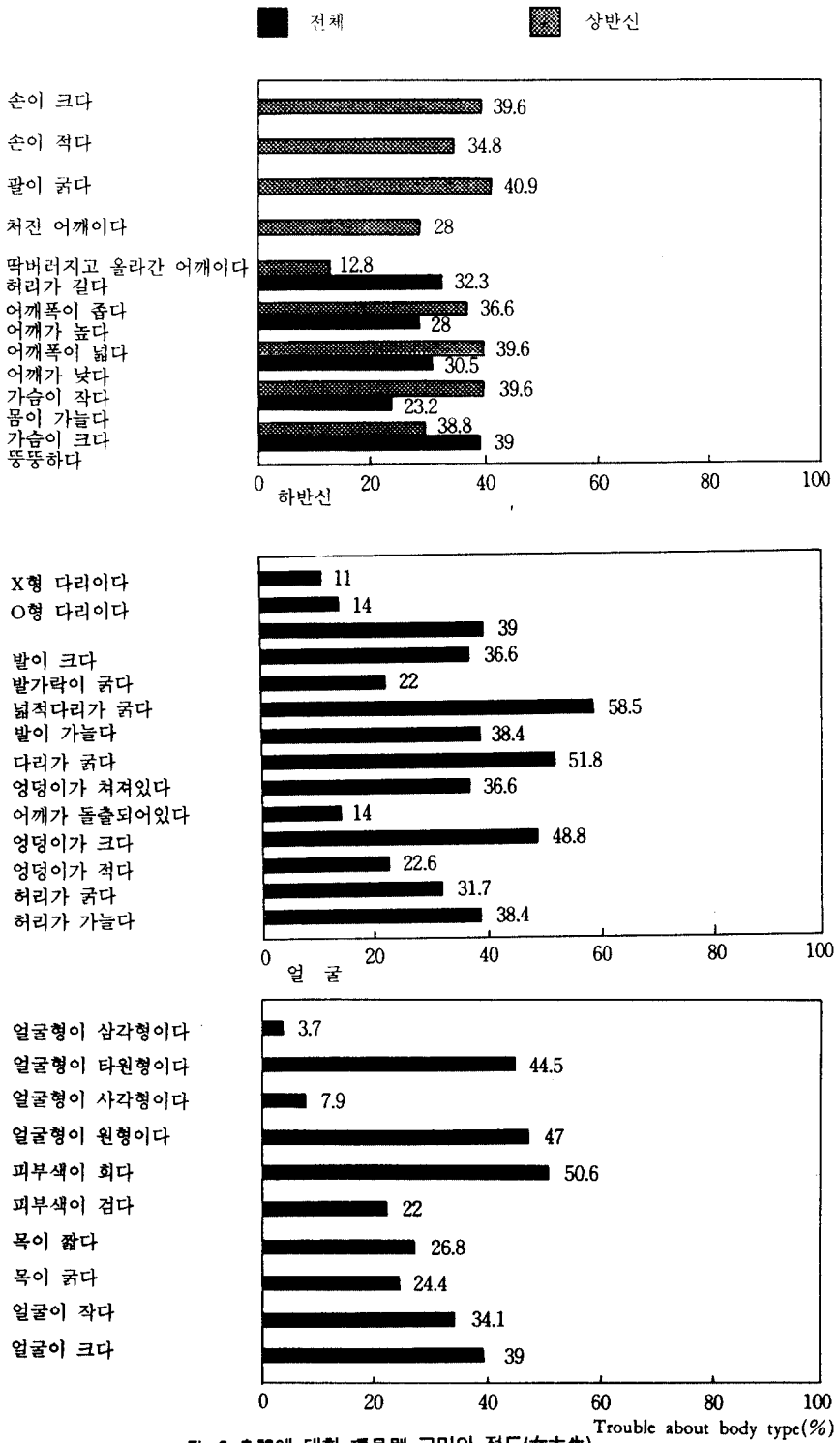


Fig.2 身體에 대한 項目別 고민의 정도(女大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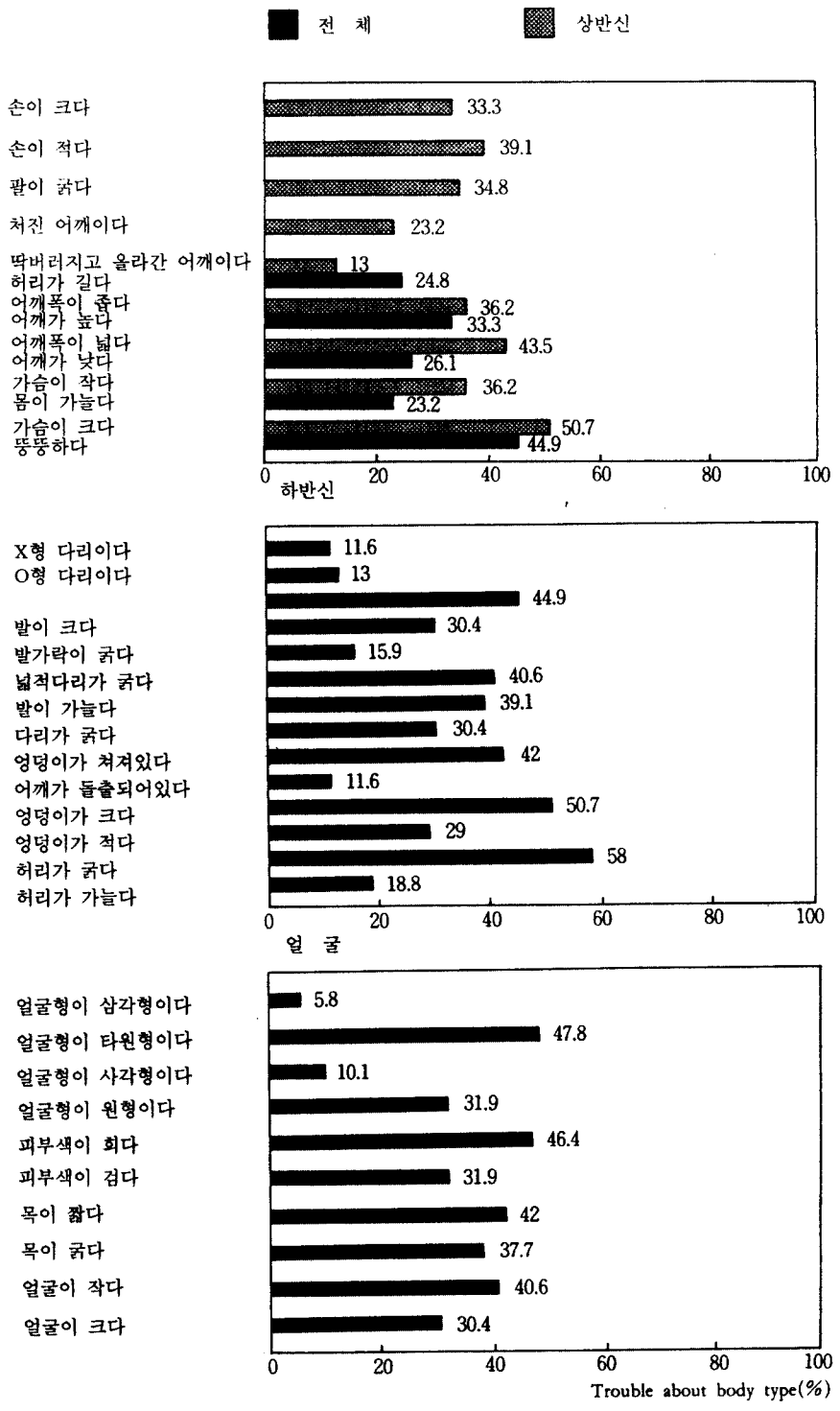


Fig.3 身體에 대한 項目別 고민의 정도(主婦)

신체에 대한 苦悶이 크지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일본의 中川의 研究結果[4]와 일치한다.

전체적인 形態에 대해서 苦悶의 정도가 큰 項目은 女大生 主婦 모두 같은 경향으로 「뚱뚱하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허리가 길다」 「어깨가 낮다」 「몸이 가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日本의 女大生은 「뚱뚱하다」에 苦悶이 있다고 많이 대답하였고 상반신은 「가슴이 작다」에 고민이 많으며 다음으로 「팔이 굵다」 「어깨가 쳐져있다」에 고민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뚱뚱함에 대한 고민은 공통적이나 우리나라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은 우리나라 여성이 일본 여성에 비해 가슴이작고 어깨가 쳐져있음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았다.[4] 下半身은 女大生의 경우 「넓적다리가 굵다」가 5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다리가 굵다」와 「엉덩이가 크다」 「다리가 짧다」 「허리가 굵다」의 순으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고민이 컸다. 主婦의 경우는 「허리가 굵다」가 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엉덩이가 크다」 「다리가 짧다」 「엉덩이가 쳐져있다」 「넓적다리가 굵다」의 順 이었다. 女大生은 現實的으로 다리나 넓적다리가 굵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에 대한 고민이 많은 반면 主婦는 허리 엉덩이의 지방축적으로 생긴 「허리가 굵다」 「엉덩이가 크다」에 많은 고민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얼굴은 「피부색이 검다」가 5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얼굴이 사각형이다」 「얼굴이 크다」 의 순 이었으며 주부 또한 같은 경향을 보였다. 하반신에 대한 고민은 日本 女大生과 일치하는 傾向이고[4] 얼굴은 「얼굴형이 원형이다」에 고민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아 우리나라 여성은 얼굴形이 사각형인데 대해, 일본은 圓形인데 대해 고민이 많음을 알 수 있다.

〈Table 3〉은 身體 각 部位의 사이즈에 대한 고민유무의 그룹별 유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女大生그룹과 主婦의 그룹간에 차이를 보인 項目은 「가슴이 크다」는 0.1% 수준에서 「허리가 굵다」는 0.01%수준에서 「다리가 굵다」는 0.1%수준에서 「목이 짧다」는 0.5%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이로서 女大生은 「가슴이 크다」「허리가 굵다」에 크게 고민을 하지 않지만 주부는 어느정도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다리가 굵다」의 項目을 보면 主婦는 크게 고민하고

〈Table 3〉 身體部位의 칫수에 대한 고민유무의 그룹별 유의도

항 목	t-value
가슴이 크다	3.05**
허리가 굵다	3.75***
다리가 굵다	-3.14**
목이 짧다	2.20*

* P〈.05 ** P 〈.1 ***P〈 .001

있지않은 반면 女大生은 이 項目에 대해 苦悶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女大生은 下半身중 「다리가 굵다」에 대해 現實과 理想型의 틈(gap)이 큰데 이는 女大生의 意識構造를 볼 때 아름다운 體型에 날씬한 다리형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 集團別 苦悶의 有無

〈Fig 4와 5〉는 女大生과 主婦의 가슴둘레 사이즈별로 苦悶의 程度를 나타낸 것인데 中川에 의한 사이즈분류[4]에 의해 분류 한 바, 여대생은 5그룹이고 주부는 6그룹으로서 여대생은 6그룹에 해당되는 피험자가 없었다. 그룹과 項目간의 相互關聯에 유의성이 있는 項目만 제시하였다. 그림을 보면 女大生의 경우 가슴둘레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전체적으로 「뚱뚱하다」 「가슴이 크다」 「어깨폭이 넓다」 「팔이굵다」 「허리가 굵다」 「엉덩이가 크다」 「넓적다리가 굵다」 「얼굴이크다」 「목이굵다」의 항목에 苦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또 가슴둘레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몸이 가늘다」 「가슴이 작다」 「어깨폭이 작다」 「허리가 가늘다」 「엉덩이가 작다」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다리가 짧다」 「넓적다리가 굵다」는 가슴둘레의 사이즈가 크거나 작은 사람 모두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主婦의 경우를 보면 그룹과 항목간에 유의성이 있는 항목은 「전체적으로 뚱뚱하다」 「허리가 굵다」 「가슴이 크다」 「허리가 굵다」 「엉덩이가 크다」 「몸이 가늘다」 「가슴이 작다」 「허리가 가늘다」이었다. 즉 가슴둘레의 사이즈가 클수록 「전체적으로 뚱뚱하다」 「가슴이 크다」 「허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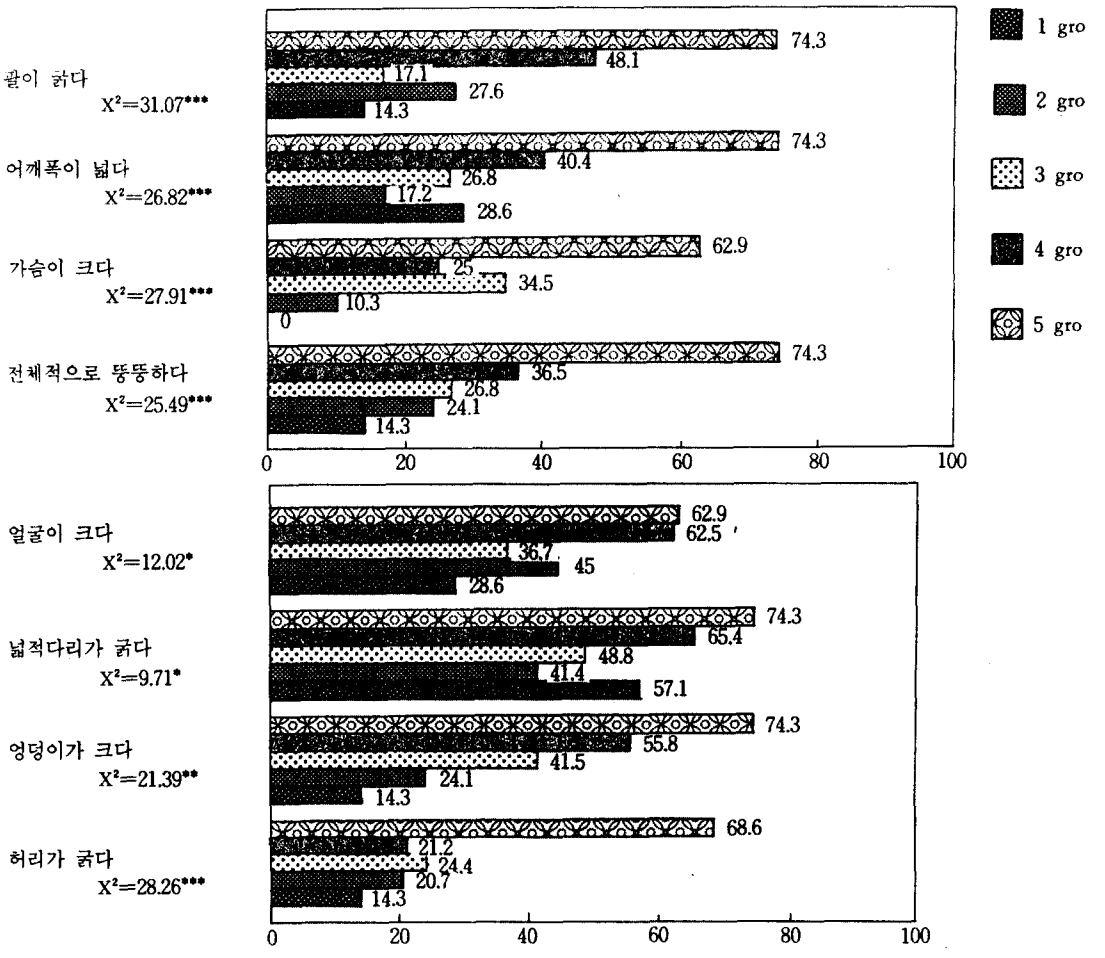


Fig.4 가슴둘레사이즈별 고민의 정도(女大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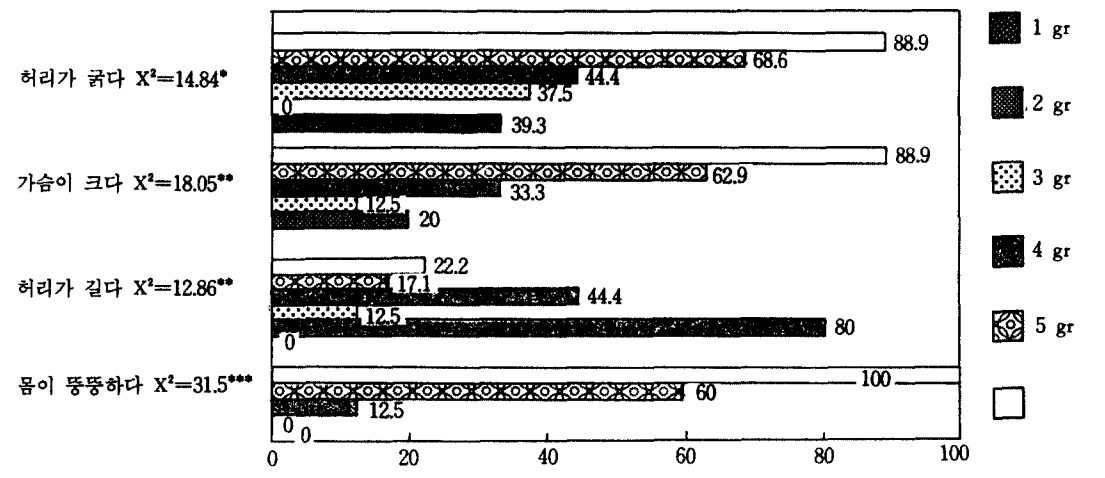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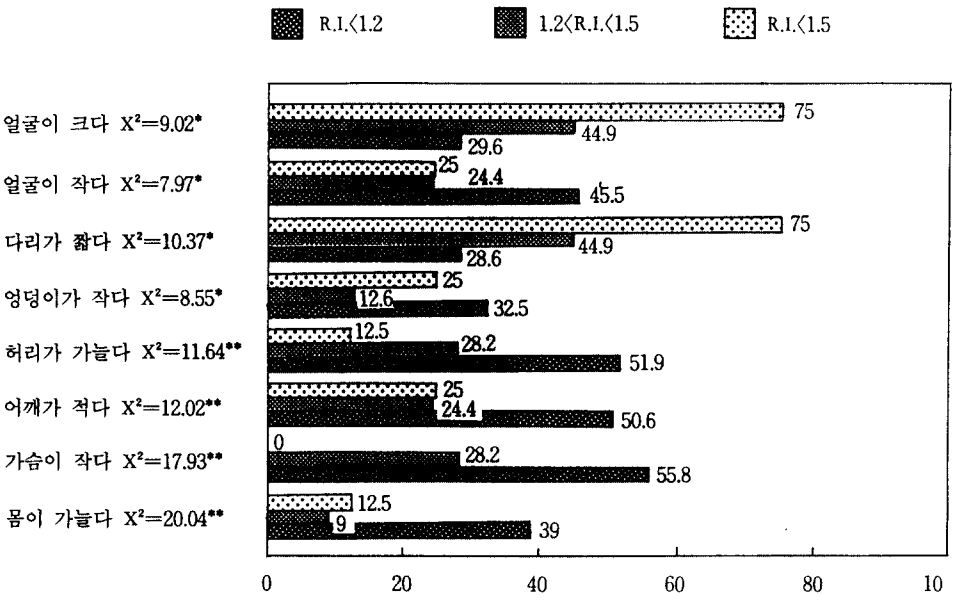


Fig.5 가슴둘레사이즈별 고민의 정도(主婦)

굵다」「엉덩이가 크다」에 고민을 가지고 있고 가슴둘레가 작을수록 「몸이 가늘다」「가슴이 작다」「허리가 가늘다」에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뚱뚱하다」의 항목에 대해서 가슴둘레 標準型의 女大生은 고민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26.8%이고, 主婦는 12.5%로서 女大生이 이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가슴이 작다」의 항목은 女大生의 경우 1그룹에서 85.7%, 主婦는 66.7%로서 가슴둘레가 작은 여대생이 주부에 비해 이에 대한 고민이 큼을 알 수 있다.

〈Fig. 6와 7〉는 身體充實指數를 기준으로 한 고민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며 그룹과 항목간의 相互關聯에 유의성이 있는 項目만 제시하였다. 대체적으로 보면 肥滿型범주의 경우 主婦보다 女大生이 각 항목에 대해서 고민의 백분율이 크고 각 부위의 사이즈가 큰 것에 대한 고민이 작은 것에 대한 고민보다 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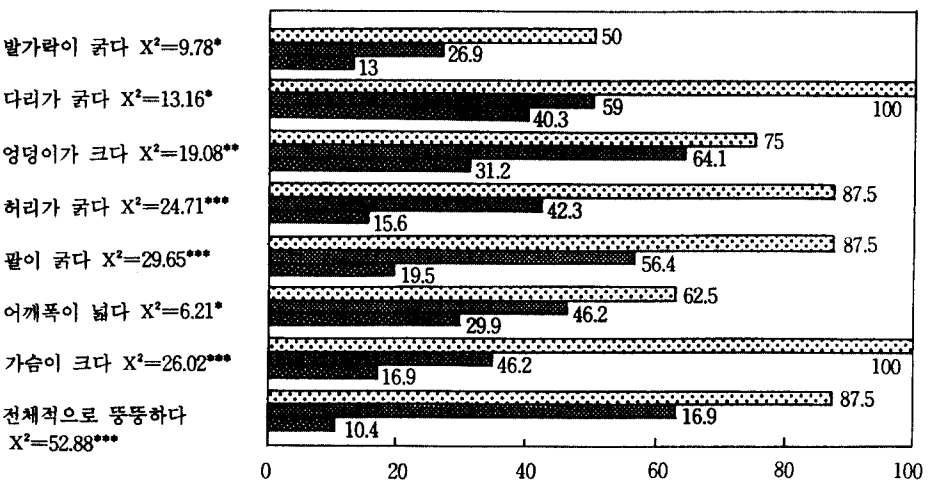


Fig.6 身體充實指數를 기준으로 한 고민의 정도(女大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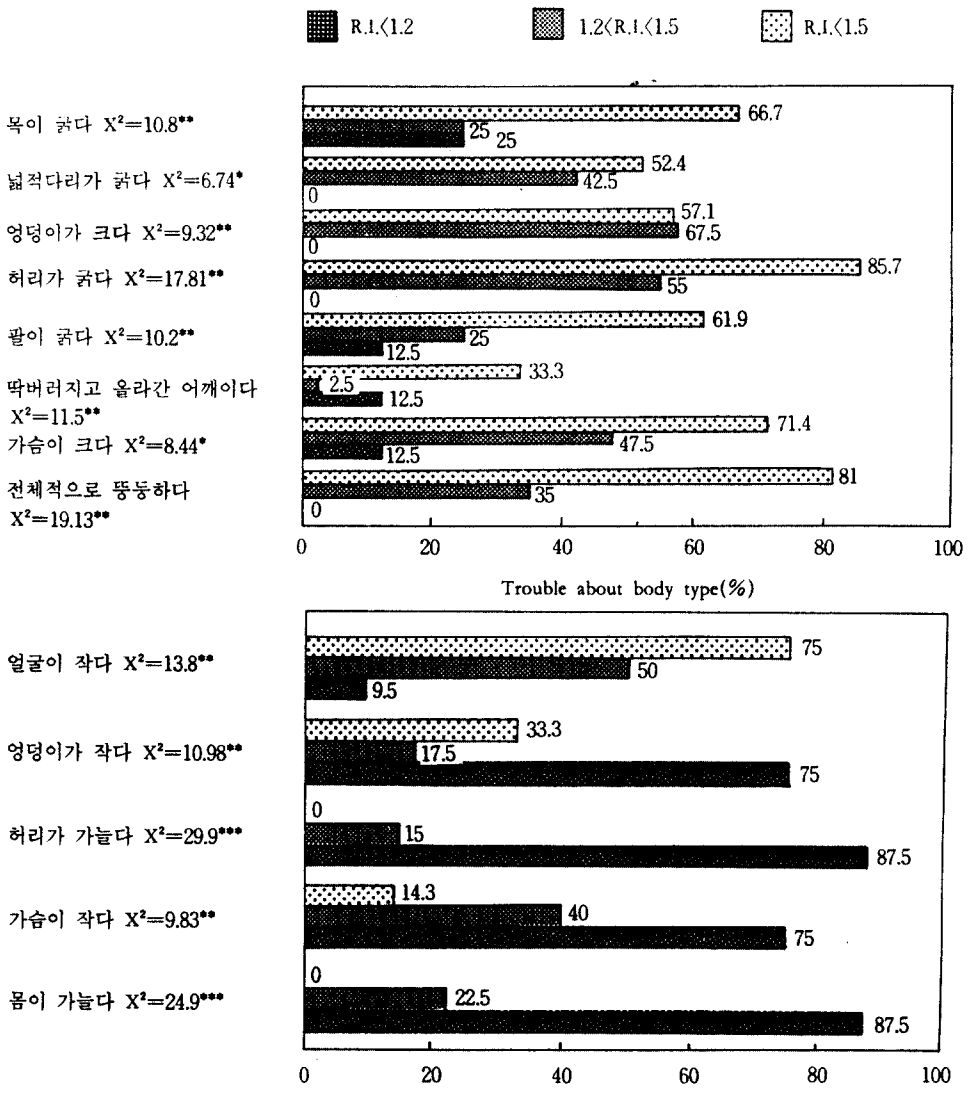


Fig.7 身體尺實指數를 기준으로 한 고민의 정도(主婦)

다. 그러나 衰弱型範疇의 주부의 각 부위의 사이즈가 작은 것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여대생보다 적게 나타났다.

이로 볼때 일반적으로 슬림(slim)지향의 傾向을 띄지만 주부들이 身體 각 部位의 사이즈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적고 日本의 硏究結果를 보면 中年層과 젊은 女性層이 모두 슬림지향성이지만 젊은 여성층이 더 슬림지향이 강하다고 하여[4)10)]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다시 말해서 女大生이 본인의 身體에 대한 슬림(slim)의 傾向이 강하여 이에 대한 고민이 높다고 생각된다.

3. 身體 각 部位의 滿足度

1) 單純集計別 滿足度

〈Table 4〉, 〈Fig. 8〉은 身體 각 部位의 滿足度를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滿足度가 평균 3.03%에서 3.81% 정도로, 女大生 主婦 모두 「그저그렇다」라고 대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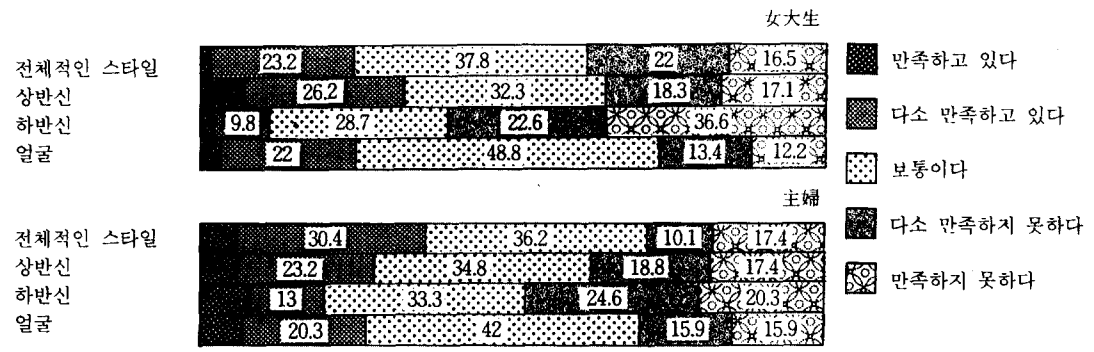


Fig.8 身體 각 部位의 滿足度

〈Table 4〉 身體의 각 部位에 대한 滿足度와 그룹간 유의도

신 체 부 위	만 족 도		t-value
	여대생	주 부	
전체적인 스타일	3.30	3.03	1.71
상반신	3.14	3.19	-0.20
하반신	3.81	3.35	2.75**
얼 굴	3.09	3.16	-0.48

** P〈.01

했다. 각 부위별 로 보면 전체적인 스타일은 여대생이 37.8%, 주부가 36.2%가 「그저그렇다」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약간 만족한다」 로서 신체에 대해서 만족하는 傾向이며 상반신 얼굴 등은 대체로 전체적인 스타일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그 중 下半身에 대한 불만이 크게 나타나 여대생은 59.2%, 주부는 44.8%가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특히 여대생은 36.6%가 「만족하지 못한다」로서 여대생의 하반신에 대한 불만족도가 큼을 알 수 있으며 日本의 女大生의 경우도 下半身의 불만도가 높아 일치하는 결과[4]를 보였다. 女大生과 主婦그룹간의 차이를 보면 下半身에서만 0.1%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여 여대생들의 下半身에 대한 滿足度가 主婦보다 떨어지는 경향이다.

2)集團別 滿足度

〈Fig. 9와 10〉은 여대생과 주부의 身體充實指數를 기준으로 한 滿足度를 나타낸 것이다. 女大生의 경우는 上半身과 얼굴에 대한 滿足感은 身體充實指數에 상관이 없는 반면 전체적인 스타일은 x^2=20.87로 0.1%수준에서, 下半身은 x^2=19.53으로 0.5%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어 身體充實指數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衰弱型 正常型은 대체로 신체에 대해 만족하는 傾向이나 肥滿型은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下半身과 얼굴의 경우는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下半身에 대한 만족감은 정상의 範疇에 속하는 사람도 만족스럽지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고 얼굴에 대해서는 身體充實指數에 상관없이 「그저 그렇다」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主婦도 滿足感과 身體充實指數와는 相互關聯性은 보이지 않았다.주부 마찬가지로 下半身에 대한 불만족감이 높은 편이고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上半身 얼굴에 대한 滿足感은 여대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3) 理想型이라 생각하는 身體型

人間關係나 社會構造가 複雜多變한 現代社會속에서 의복에 대한 요구는 다변적이고 보다 美적임과 동시에 機能性을 요구하고 있다. 의복은 물체나 기계와는 달리 인간이 사용하는 물체이기 때문에 衣服設計에 관련된 問題는 다각적 측면에서 취급되어져야 한다.[10] 그래서 객관적인 신체형 뿐아니라 주관적인 신체형에 대한 의식 또한 신체에 적합한 衣服設計상의 重要한 問題라 생각되어 어떠한 형을 理想型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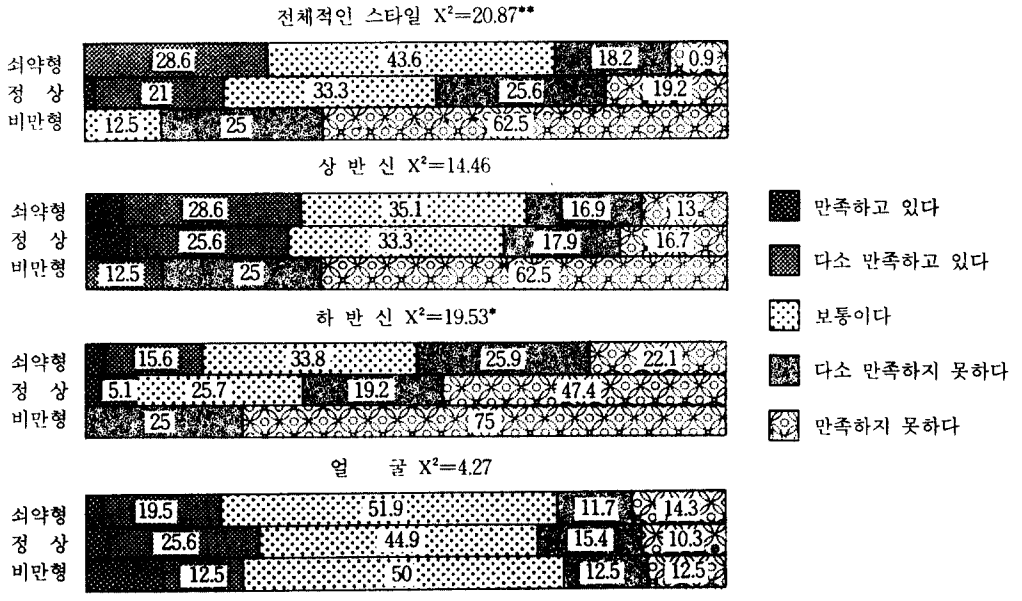


Fig.9 身體尺實指數를 기준으로 한 滿足度(女大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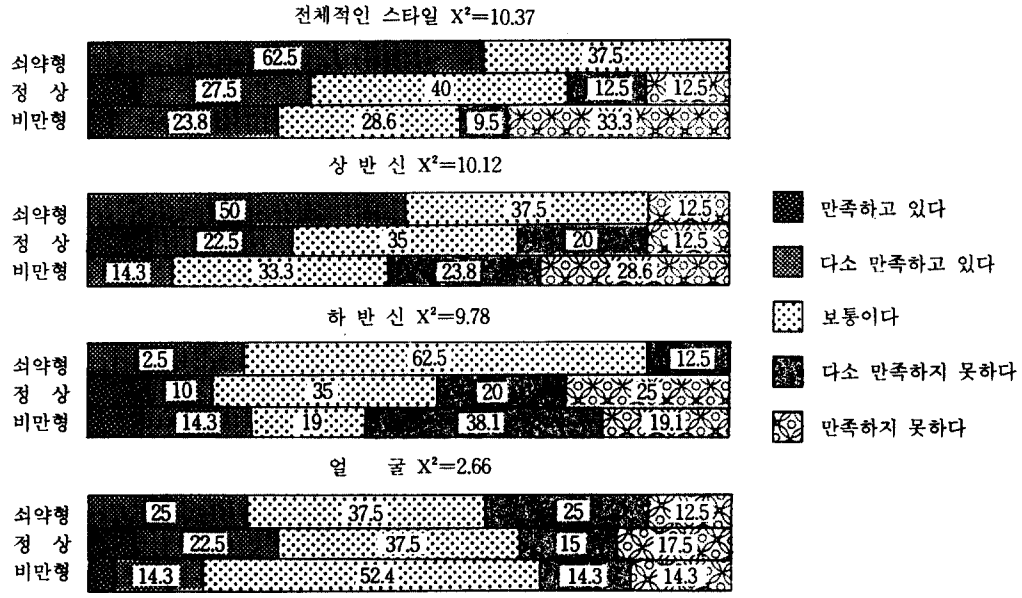


Fig.10 身體尺實指數를 기준으로 한 滿足度(主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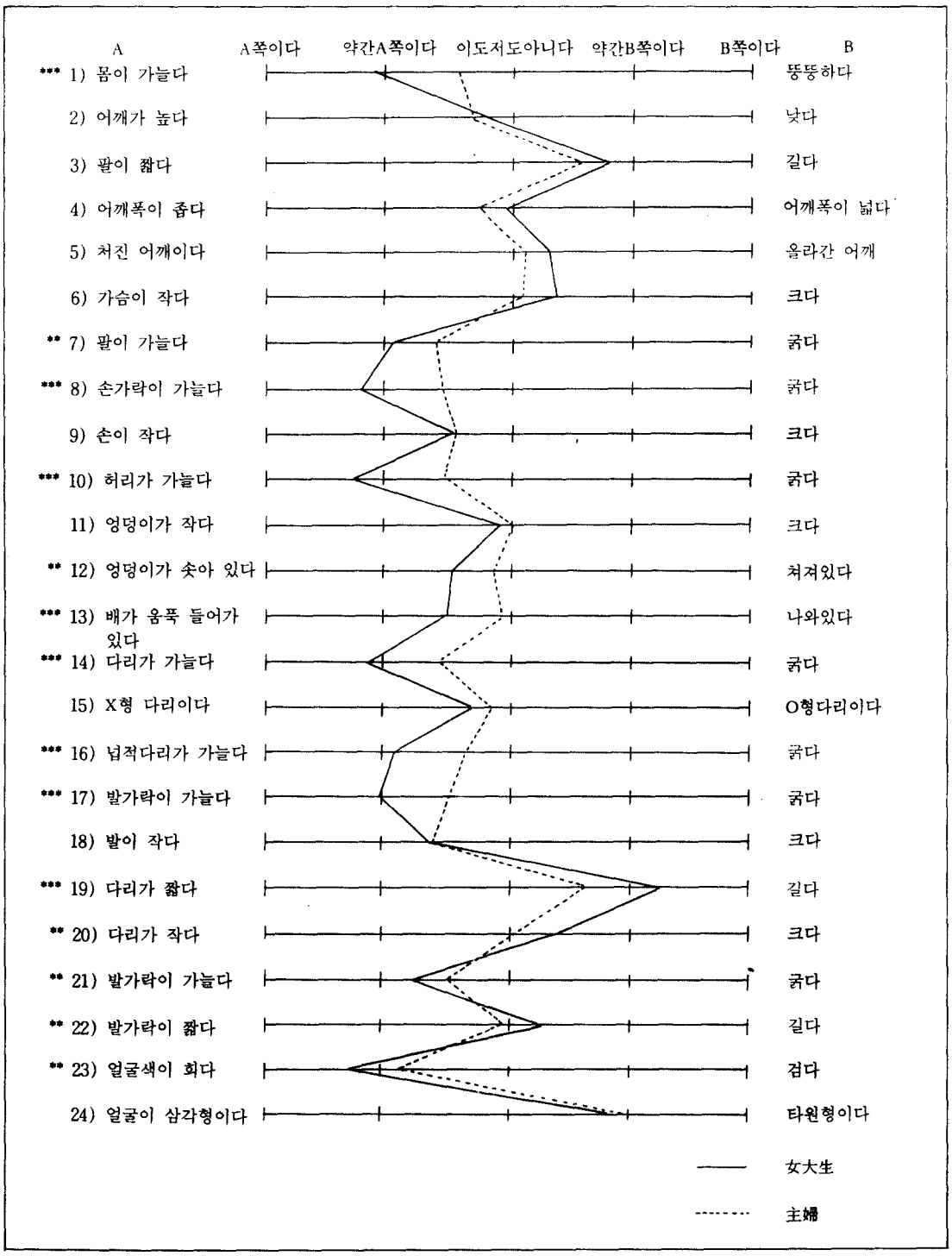


Fig.11 身體理想型에 대한 프로필과 그룹간 유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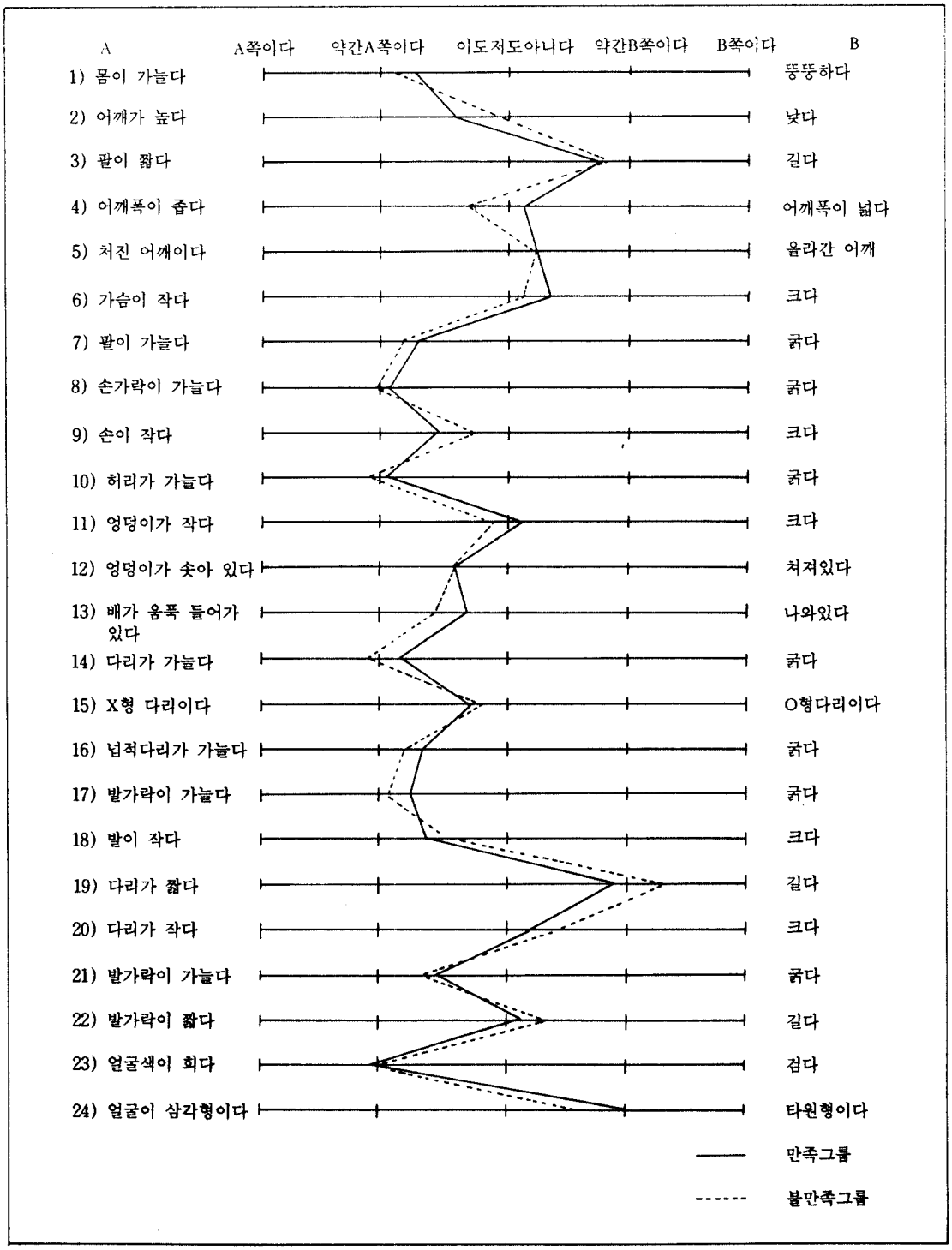


Fig.12 만족그룹과 불만족그룹의 이상형에 대한 프로필

〈Fig. 11〉은 女大生과 主婦의 身體理想型에 대한 프로필과 그룹간의 유의도를 나타낸 것이다. A쪽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항목을 보면「몸이 가늘다」「팔이 가늘다」「허리가 가늘다」「배가 움푹들어가 있다」「다리가 가늘다」「X형 다리이다」「넓적다리가 가늘다」「발이 작다」「발가락이 가늘다」등이며 B쪽을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항목은「팔이 길다」「다리가 길다」「발가락이 길다」「얼굴이 타원형이다」등이다 즉 높이항목은 길수록 둘레항목은 가늘수록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룹간의 차이를 보면 유의차를 보인 항목이「몸이 가늘다」「팔이 가늘다」「손가락이 가늘다」「허리가 가늘다」「엉덩이가 솟아있다」「배가 움푹들어가 있다」「다리가 가늘다」「넓적다리가 가늘다」「다리가 짧다」「다리가 작다」「발가락이 짧다」「얼굴색이 희다」이다. 이를 보면 대체로 주부보다 여대생들이 現實보다 身體部位가 가늘고 긴 형태를 理想型으로 追求하고 있다고 하겠다.

〈Fig. 12〉는 滿足그룹과 不滿足그룹의 理想型에 대한 프로필을 나타낸 것인데 두 그룹이 追求하는 理想型이 유사함을 보여준다.

〈Table 5〉는 身體에 대한 意識構造와 理想型간의 유의도를 나타낸 것인데 여대생의 경우「어깨폭이 좁다」「발가락이짧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현실과 理想型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부의 경우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항목이 여대생보다는 적어「처진어깨이다」「가슴이 작다」「손이 작다」「X형다리이다」「발이작다」「다리가 작다」「발가락이 가늘다」「발가락이 짧다」였다. 이로 볼때 女大生이 主婦보다 理想型과 現實사이의 차이가 많아 身體型에 대한 現實에의 滿足이 不足함을 알 수 있다.

〈Table 5〉 現實體型과 理想體型간의 意識構造 比較檢證結果

항 목	t-value	
	여 대 생	주 부
몸이 가늘다.	9.33***	4.30***
어깨가 높다.	2.36*	2.20*
팔이 짧다.	-4.64***	-2.94**
어깨폭이 좁다.	0.87	2.92**
처진 어깨이다.	-3.18**	-0.11
가슴이 작다.	-3.69***	-0.29
팔이 가늘다.	5.93***	3.43**
손가락이 가늘다.	10.72***	3.03**
손이 작다.	3.25**	1.65
허리가 가늘다.	10.90***	6.28***
엉덩이가 작다.	2.93**	3.41**
엉덩이가 솟아있다.	9.23***	3.94***
배가 움푹 들어가 있다.	10.14***	5.42***
다리가 가늘다.	12.86***	3.47**
X형 다리이다.	4.10***	0.78
넓적다리가 가늘다.	1.38***	4.13***
발가락이 가늘다.	6.86***	2.02*
발이 작다.	3.99***	1.33
다리가 짧다.	-12.37***	-4.65***
다리가 작다.	-3.30**	-0.51
발가락이 가늘다.	4.74***	2.26
발가락이 짧다.	-0.19	0.88
얼굴색이 희다.	6.21***	2.7
얼굴이 삼각형이다.	-13.00***	-1.17

* P〈.05 ** P〈.01 *** P〈.001

Ⅳ. 要約 및 結論

身體에 대한 意識構造가 着衣 行動에 重要한 影響을 미치는 要因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本 硏究에서는 女大生과 主婦그룹의 身體에 대한 생각과 고민의 정도, 滿足度,그리고 身體의 理想型에 대해 調査하고 그룹간의 意識構造의 차이를 調査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1. 調査對象者의 身體칫수는 표준사이즈에 비해 작고 그룹간의 차이가 있어 중년으로 갈수록 사이즈에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치수별 구성비를 볼때 두드러진 현상은 女大生이 主婦에 비해 높이 項目인 신장은 크고 둘레항목은 작은 경향을 보였다.

2. 대체로 본인의 身體에 대해서「이도저도 아니다」에 많이 대답하여 각 부위에 대해 극단적인 생각

은 가지고 있지않았다. 그룹별 차이를 보인 항목은 「몸이 가늘다」는 0.1%수준에서 「허리가 가늘다」는 0.01%수준에서, 「다리가 가늘다」, 「넙적다리가 가늘다」는 0.5%수준에서 유의차를 보였다.

3. 전체적인 形態에 대해서 苦悶의 정도가 큰 項目은 女大生 主婦 모두 같은 경향으로 「뚱뚱하다」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허리가 길다」 「어깨가 낮다」 「몸이 가늘다」의 순으로 나타났다. 下半身은 女大生의 경우 「넙적다리가 굵다」가 58.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다리가 굵다」와 「엉덩이가 크다」 「다리가 짧다」 「허리가 굵다」의 순으로 신체 각 부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주부의 경우는 「허리가 굵다」가 5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엉덩이가 크다」 「다리가 짧다」 「엉덩이가 처져있다」 「넙적다리가 굵다」의 순이었다.

4. 集團別 고민의 정도를 보면 身體充實指數의 肥滿型範疇의 경우, 主婦보다 女大生이 각 項目에 대해서 고민의 백분율이 크고 각 부위의 사이즈가 큰 것에 대한 고민이 작은것에 대한 고민보다 컸다. 그러나 衰弱型範疇의 주부의 각 부위의 사이즈가 작은 것에 대한 고민의 정도가 여대생보다 적게 나타났다.

5. 身體滿足度를 보면 平均 3.03%에서 3.81%정도로, 女大生 主婦 모두 「그저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으며 다음으로 「약간 만족한다」로서 身體에 대해서 만족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그 중 下半身에 대한 不滿이 크게 나타났고 身體充實指數에 따른 滿足度는 女大生의 경우, 얼굴에 대한 滿足感은 身體充實指數에 상관이 없는 반면 전체적인 스타일은 $x^2=20.87$로 0.1%수준에서, 下半身은 $x^2=19.53$으로 0.5%수준에서 유의차가 있어 身體充實指數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主婦는 身體充實指數와 상호관련이 없었다.

6. 理想型을 보면 대체로 主婦보다 女大生들이 現實보다 身體部位가 가늘고 긴 형태를 理想型으로 追求하고 있었다. 身體에 대한 意識構造와 理想型간의 유의도는 女大生의 경우 「어깨폭이 좁다」 「발가락이 짧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現實과 理想型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준다. 主婦의 경우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항목이 女大生보다는 적어 「처진어깨이다」 「가슴이 작다」 「손이 작다」 「X형다리이다」 「발이작다」 「다리가 작다」 「발가락이 가늘다」 「발가락이 짧다」였다.

結論적으로 主婦들의 경우 실제로 女大生보다 아름다운 體型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心理的으로 體型에 대한 滿足感이 女大生보다 높다. 이는 보다 안정된 환경속에서 現實에 滿足하는 生活을 하는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女大生의 現實과 理想型과의 차이가 큰 것은 보다 높은 理想追求와 未來志向的인 心理的 상태에서 기인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着衣行動 또한 신체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重要한 影響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후속연구로서 身體에 대한 意識構造와 着衣行動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參考文獻】

1) 김순심, 유은희, 이유경, 이은숙 역,: 복식사회심리학, 경춘사(1990), 원제; Susan B. Kaiser 저,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2) 박정순, 이귀순, 김순구; 노인복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 4, (1985).
3) 이경미; 중년여성기성복의 치수적합성에 관한 연구, 이대석사학위논문, (1991).
4) 中川早苗; 女子學生の身體に對する意識と着裝行動との關聯について,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30, 11 (1989).
5) 山名信子・大支万八榮子, 中野縝子;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18, 552(1977).
6) 山名信子・大支万八榮子, 中野縝子;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18, 557(1977).
7) 神山進, 牛田聰子, 併田膚;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8, 25 (1987).
8) 神山進, 牛田聰子, 併田膚; 纖維製品消費科學會誌, 28, 38 (1987).
9) 岡田宣子; 日本家定學會誌, 39, 699 (1988).
10) 植竹眺子; 日本家定學會誌, 39, 711 (1988).

11) 김구자, 이순원; 의류의 사이즈체계설정을 위한 신체발달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 1, 48-60 (1991).
12) 손희순; 우리나라 중년기여성의 체형과 의복치수규격에 관한 연구,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1989).
13) 정옥임; 衣服構成을 위한 計量的 體型硏究, 대한인간공학회지, 5(1), 19-28(1986).
14) 정삼호 강혜원;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선호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5, 2, 103-114 (1991).
15) 유정미; 중년여성복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
16) 이미경, 이인자;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선호도와 자아개념과의 관련성 연구,한국의류학회지, 9, 1, 9-16 (1985).
17) 임숙자, 권영남; 의복행동과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및 체격과의 관계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0, 2, 37-50 (1986).
18) 엄정국, 문경일; 통계분석을 위한 SPSS PC+, (1989).
19) 공업진흥청; 국민표준체위조사보고서 (1986).